

8.

청년정책



[강의 보기]

1

국민의힘 당헌·당규 속 ‘청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책 <10대 약속>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1-2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

입시,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공정과 부조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를 만든다.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및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고용세습 문제를 완전히 청산한다.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고액 체납과 탈세 등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1-3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 지나친 사교육 확대로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운 편법과 반칙의 입시비리가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선발 제도를 확대한다.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식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 보조 교사를 공교육에 적용하여 개인 간 학습격차를 해소한다.

국민의힘은 불공정과 부조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입시,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내로남불’과 ‘불공정’, ‘부정의’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국사태’, ‘인국공사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개인의 노력을 폄하했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부모찬스로 공정한 운동장을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자나 기득권이 아니어도 ‘부모 찬스’ 없이도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한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습니다.

2 현행법령에서의 청년과 청년 정치참여

1 청년의 구분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국민의힘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

제10절 청년위원회 ② 청년위원회는 만 45세 미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에 따른 구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에서 “청년위원회는 만 45세 미만”이라는 규정을 준용해 **청년을 만 45세 미만으로** 보다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정치참여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청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미성년자(만18세 미만)에게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에 따라서 만 16세 이상은 정당가입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67조(정의)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출마가능 연령은 만 4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 국민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주요 청년정책

1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 분양가 4억 5천만 원의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20%에 해당하는 9천만 원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80%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원은 장기 원리금 상환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 신설
-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3 주요 청년정책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불법찬스 없이도 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 공정채용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 ▶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청년 민심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2030 청년 민심 분석 및 대응 방안〉

○ 현황

-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2030세대가 2022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큰 지지를 보냄.
* 20대 이하(45.5%), 30대(48.1%)

출처 : 2022 대선 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 분석

-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강행 등,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에 등을 돌림.
- 조국 사태 등 사회지도층의 내로남불과 공정 가치 훼손에 실망해 대안으로서 야권을 지지함.
-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치의 폭등이 이루어지자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불가능해진 박탈감에 따른 반사작용이 작용함.

- ① 하영 : 2030세대가 불과 5년 만에 지지 정당을 바꾸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정치를 잘못했을 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2030 민심 공략에 나서야 해.
- ② 은정 : 맞아, 그리고 청년층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불법적인 기득권 대물림이 없어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
- ③ 경준 :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큰 박탈감을 느꼈기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문제야.
- ④ 장원 :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2030세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봐야 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야.

2.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이끌었던 새라 머레이 감독의 발언과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난 4년을 준비했다. 개막을 앞두고 갑자기 북한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

“스태프 중 한 명을 통해 불과 이틀 전에야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단일팀 논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에 대한 찬반 >

(%)

	찬성	반대	잘모름
전체	40.9	<u>46.3</u>	12.9
20대	29.8	<u>54.9</u>	15.4
30대	40.5	<u>51.3</u>	8.2
40대	<u>56.5</u>	34.2	9.2
50대	38.3	<u>48.8</u>	12.9
60대 이상	37.9	<u>44.7</u>	17.4

※ 알앤씨치 바로미터 여론조사(18. 1. 24)

- ① 승호 :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 청년의 찬성 여론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이 문제를 공정 이슈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 ② 준우 :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다니 20대는 이때부터 반정부성향이 짙었구나.
- ③ 인규 : 공정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는 2030의 여론이 표출된 사례로 봐야겠군.
- ④ 연주 : 우리도 청년 유권자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앞으로도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어.

3. 다음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읽은 사람들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중략)
-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중략)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① 재형(만19세) :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당장 출마할 수 없어”
- ② 은희(만19세) :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어”
- ③ 우택(만17세) : “오늘 국민의힘에 가입했어”
- ④ 학용(만17세) :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할거야”

4.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발췌내용과 ‘내 집 마련’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했을 때, 옳지 않은 주장은?

윤석열, 부동산부터 손본다... “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2022.3.10. 한국일보, 신연수 기자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뒤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잔금을 갚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을 통해선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 빗물펌프, 공영주차장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중략)

질문) 선생님께서는 향후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택 구입해야”	“주택 구입 필요없다”	기타	잘모름
전체	60.5%	27.7%	9.0%	2.8%

[데이터리서치 정기 국민여론조사(22. 1. 25)]

- ① 범수 : ‘청년원가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겠어.
- ② 형동 : ‘청년원가주택’은 공공임대라서 ‘내 집 마련’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야.
- ③ 대식 : ‘역세권 첫집 주택’은 청년들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하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 ④ 경준 : ‘역세권 첫집 주택’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을 것 같아.

5. 아래는 청년 세대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다. 다음 중 국민의힘 청년정책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 나.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
- 다.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최대 5점
- 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6. 다음 보도자료를 본 당원들의 토론 중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1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른 연령층도 2021년 상반기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층(27.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들어 더 심해진 고용 한파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021년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했다.

- ① 성원 :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해.
- ② 의동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야.
- ③ 석준 : 공공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많이 만들면 청년들이 좋아할거야.
- ④ 춘식 :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야.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서 취업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② 5. ④ 6. ③